

어명소 제2차관, “연휴기간 비상안전대응 철저”

- 4일, 관계기관 긴급 점검회의 개최... 기관별 안전 관리대책 점검-

-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5월 4일(목) 오전 5월 첫 연휴기간(5.5~5.7)에 대비하여 관계기관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교통 안전 및 건설 안전 등 기관별 안전 관리대책을 집중 점검하였다.

* 참석기관 : 국토교통부(5개 지방국토관리청, 제주항공청), 한국도로공사, 한국철도공사, 국가철도공단, 인천국제공항공사, 한국공항공사, 한국토지주택공사

- 금번 연휴에는 전국에 강풍을 동반한 최대 30~150mm 집중호우*가 예상되는 만큼, 각 기관들은 비상대책본부 운영, 위험 요인 사전 점검, 사고 시 신속 대응체계 구축 등 강화된 안전 관리대책을 보고하였으며,

* 제주 산간지방에는 최대 400mm 호우 전망(3일 06시 기준 제주 지역 호우 경보 발령)

- 특히, 5개 지방국토관리청, 한국도로공사, 국가철도공단, 한국토지주택 공사는 소관 건설 현장에 대한 안전 관리대책도 함께 보고하였다.

- 어 차관은 기관별 보고를 받은 이후, 이례적인 5월 연휴 집중 호우에 대비하여 비상안전대응체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줄 것을 당부하였다.

- 특히, 강풍과 폭우로 인한 사고는 인명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크므로 사고 예방과 신속한 사고 대응이 모두 중요하다면서, “철도 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, 항공기 결항으로 인한 대규모 체객 발생 등 비상 상황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철저히 해야할 것”이라고 강조하였다.

- 또한, “폭우에 대비하여 건설 현장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면, 배수구, 옹벽 등 위험 요인을 집중 점검해 줄 것”을 당부하는 등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강조하였다.

- 아울러, “폭우 등으로 인한 대형 사고 위험에 대비하여 관계기관 모두가 긴장감을 갖고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는 등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”이라고 당부하였다.

2023. 5. 4.

국토교통부 대변인

□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



□ 각 기관 참석자

